

2021년 건설경기 전망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parksungu@ricon.re.kr)

1

서론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개별산업의 침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 각 국은 슈퍼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은 지표상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건설투자 감소, 해외 건설부문의 심각한 위축 등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로 인해 공공 및 토목부문이 호조세를 보였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용 건축부문 역시 회복세를 보여 건설수주를 중심으로 지표상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건설지표 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개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건설수주, 기성 증가율에 비해 건설업체 증가폭과 속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전에 비해 경쟁이 치열해져 업체당 계약금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들의 불안감 역시 상당하다. 향후 업역, 업종, 등록기준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새로운

건설경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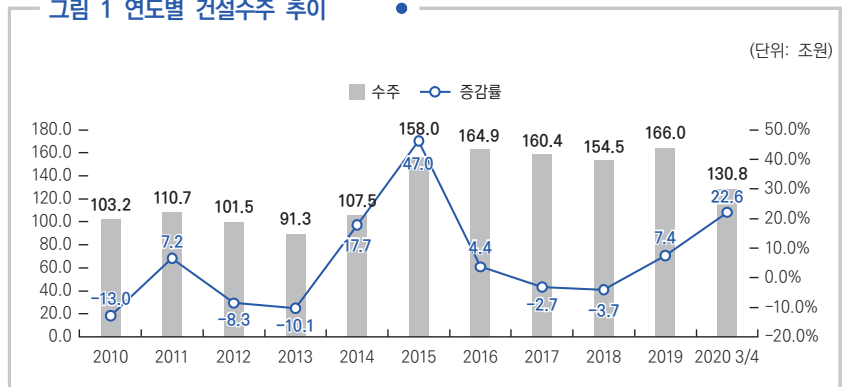
경쟁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건설경기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도 전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자료가 정책담당자는 물론 건설기업 특히, 건설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업체 등의 향후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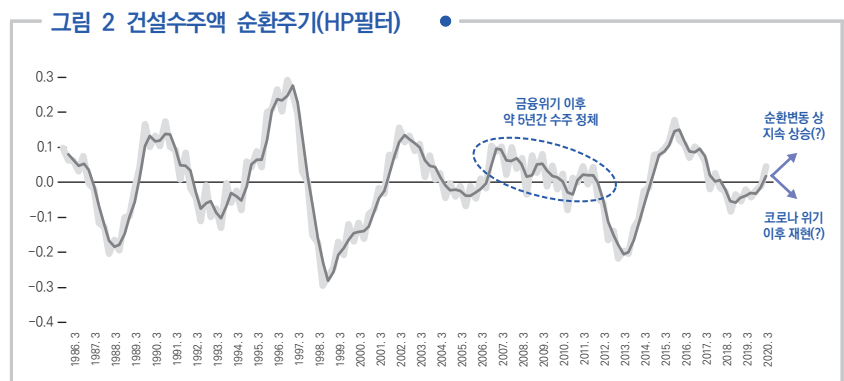
1. 건설수주

2020년 3분기 기준 건설수주는 130.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하였다. 건설수주는 2017년 하반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 16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주택경기 호조에 기인한다. 2020년 4분기까지 건설수주 호조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건설수주는 1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자 및 공종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건설수주는 민간 토목을 제외하고 전부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주거용 건축부문의 건설수주액은 6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0.3% 증가하면서 전체 건설수주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부문의 급격한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정비물량 증가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나온 밀어내기식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건설수주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연도별 건설수주 추이



HP필터 순환변동 상 건설수주는 2019년 1분기 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회복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순환변동 만으로 판단할 경우 2021년 건설수주는 지속적인 확장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수주 회복세가 주택가격 급등과 정책적 영향(공공투자 증가, 분양가상한제 회피 물량 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로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5년간 건설수주의 정체국면이 지속된 바가 있어 이번 코로나19 위기 역시 회복세 이후 정체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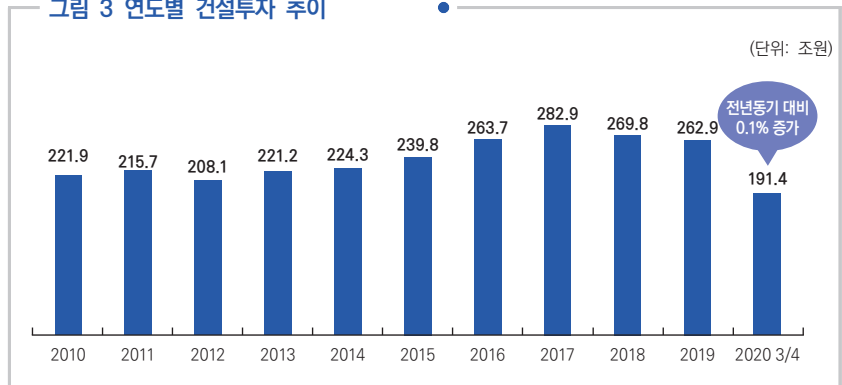


2. 건설투자

건설수주가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는 2017년 283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10분기 이상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9년 4분기~2020년 1분기까지 건설투자는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2~3분기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종별 건설투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 재정투자 중심의 토목건설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주체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이후 공공부문 투자가 증가하며, 전체 건설투자를 견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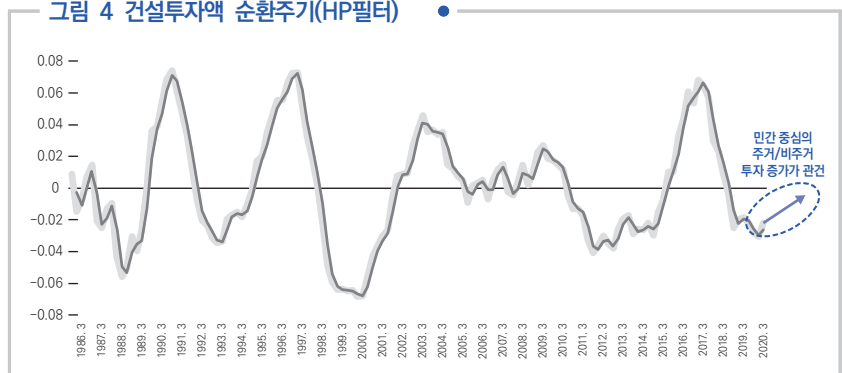
2015년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상당했으나, 2018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민간소비, 수출 등이 급감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나, 상대적으로 건설투자의 감소율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연도별 건설투자 추이



HP필터 순환변동 상 건설투자는 2017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수축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2분기 저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시험하고 있으나, 향후 회복세의 지속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한 수준이다. 다만, 2019년 이후 건설수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투자는 통계적으로 회복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이후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의 시차는 최소 2분기에서 최대 2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민간중심의 주거 및 비주거 건물투자의 증가가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건설투자액 순환주기(HP필터)



3. 전문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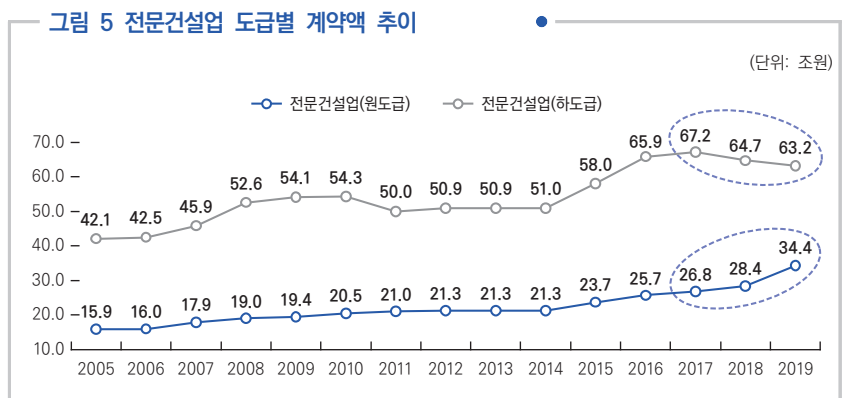
2019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97.6조원을 기록하였다. 하도급 계약액은 63.2조원으로 -2.3% 줄어들었으나, 원도급 계약액이 34.4조원으로 21.1% 증가하면서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가를 견인하였다. 전

2021년 건설시장 Key Point

문건설업 원도급계약의 상당수가 공공공사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가 전문건설업 시장 성장세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 업체당 평균 계약액은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신규 기업의 진입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시장 개선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가운데, 업종별 계약액은 서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비중이 큰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액은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기계설비공사업과 토공사는 각각 -1.5%, -7.4% 감소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공공공사 비중이 큰 업종(상하수도 +34.7%, 포장 +15.0%, 철도궤도 +42.9%)과 건축마무리공사업(실내건축 +12.2%, 금속창호 +12.7%, 도장 +6.2%)의 계약액 증가가 눈에 띈다.



1. 공공투자 증가세 지속 여부

2021년 정부 SOC 예산안은 2020년 대비 11.9% 증가한 26조원으로 결정되어 사상 최대금액이 책정되었다. SOC예산은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소폭 증가한 이후 2020년, 2021년 각각 1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수정된 국가재정 운용계획 역시 2024년까지 SOC예산을 연평균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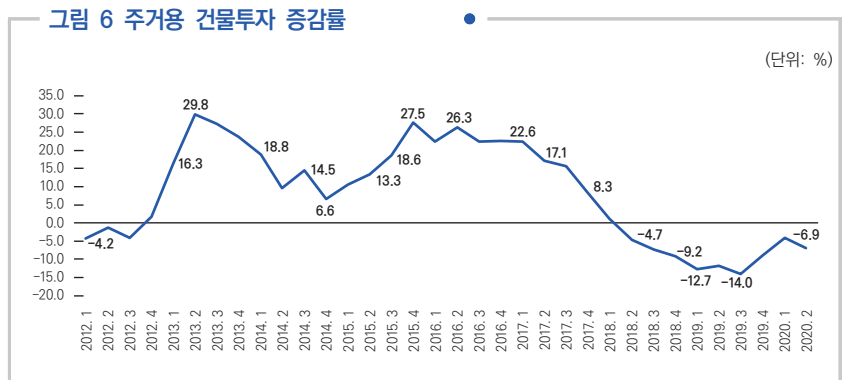
1)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가율: '16년: 12.1%, '17년: 2.6%, '18년: -0.9%, '19년: 4.8%
 전문건설업 업체수 증가율: '16년: 2.8%, '17년: 4.1%, '18년: 6.2%, '19년: 5.6%
 전문건설업 업체당 평균 계약액: '16년: 18.1억, '17년: 17.8억, '18년: 16.6억, '19년: 16.5억

증액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SOC예산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민간부문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한 경제상황이 우려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1년 공공부문 건축·토목사업은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건축부문은 공공주택 100만호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 분양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세난 등으로 인해 수도권 30만호의 공급은 조기 발주를 통해 착공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생활 SOC,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의 공공 건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토목부문 역시 SOC예산 증가, 한국판뉴딜 추진, 국가균형발전 및 노후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2021년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주거용 건물투자 회복 여부

건설투자 중 주거용 건물투자는 2018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용 건물투자는 2020년 2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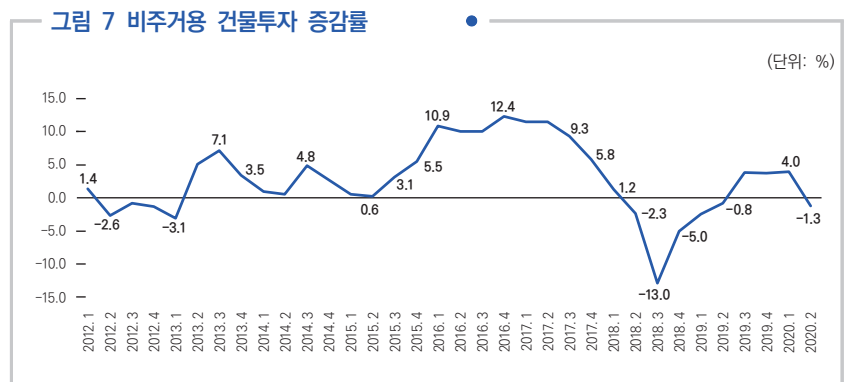


주거용 건물투자 지표는 부진한데 비해 선행지표인 인허가 및 착공물량 등은 202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들어 주거용 건설수주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선행지표는 향후 주거용 건물투자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행지표의 개선은 주택가격 상승,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인해 미래 발주물량이 앞당겨 나온 측

면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거용 건물투자의 지속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2021년 주거용 건물투자는 올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 및 착공물량, 건설수주, 분양물량 등 선행지표의 개선세는 고무적이나, 부동산 시장 규제 하에서 “인허가 → 수주 → 착공 → 투자(기성)”으로 이어지는 시차가 과거에 비해 지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 증가 역시 민간부문 투자 확대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주거용 건물투자 증가 여부

주거용 건물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오피스 등 상업용부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3분기까지 반도체 공장 증설, 물류시설 확대 등에 따라 공장·창고부문 수주는 43.9% 증가했으며, 사무실·점포는 12.4% 줄어들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투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수요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전개 양상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특히, 상업용부동산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 부진으로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수익률 역시 2019년 4분기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공장·창고 등을 중심으로 선행지표가 개선되어 증가할 여력은 존재하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된다면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 역시 상존한다.

4. 전문건설업 성장세 지속 여부

전문건설업은 하도급 물량이 계약액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이다. 전문건설업 경기변동은 건설생산체계의 분업화·전문화로 인해 건설수주에 비해 진폭이 작은 편이며, 종합건설업 수주가 감소하더라도 전문건설업 하도급 물량을 소폭으로 줄이는 특성 역시 존재한다. 또한 개별 업종은 건설프로세스 상 투입되는 시점에 따라 계약액의 시차가 상당히 크다. 즉, 선행공종의 경우 건설수주와의 시차가 짧고, 후행공종은 최대 2년 이상까지 건설수주에 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건설수주와 전문건설업 순환주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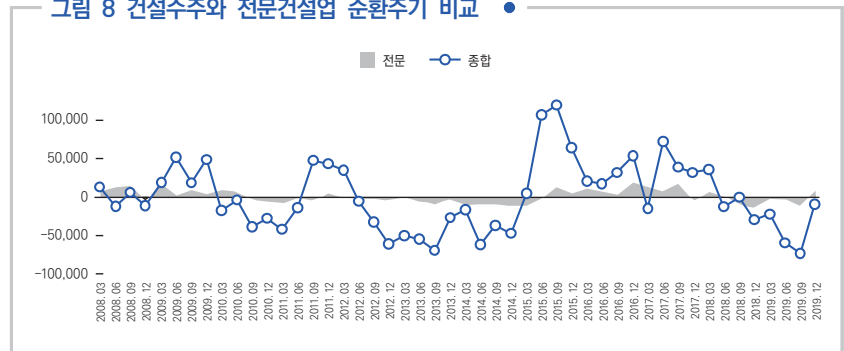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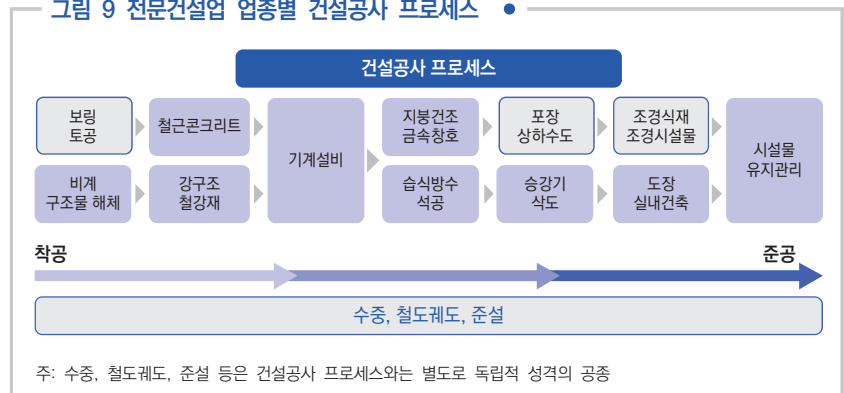


그림 9 전문건설업 업종별 건설공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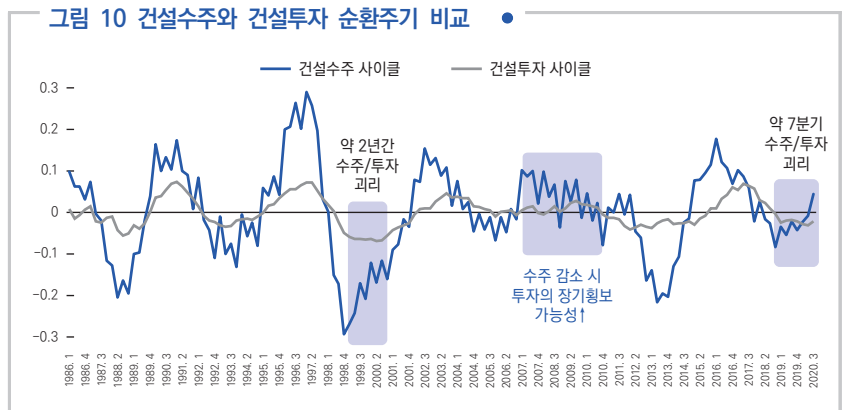
최근 전체 건설투자 감소 하에서도 공공부문 투자 증가로 인해 전문건설업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공공투자 증가와 민간투자의 일부 회복이 기대되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전문건설업 계약액 증가에 따른 거저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간 괴리 해소 여부

2019년 이후 선행지표(인허가, 수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행지표(건설투자, 기성)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건설수주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여전히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건설경기 순환주기상 건설수주와 건설투자간 괴리는 약 7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이전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의 괴리(시차)는 평균 4분기 이내이며, 외환위기 당시 약 2년간 차이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

최근 건설투자가 이전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주와 투자간 괴리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2019년 이후 건설수주 증가분이 상당히 누적되어 2021년 이후 건설투자는 통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건설수주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할 경우 건설투자는 진폭이 줄어들며 장기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시기 건설수주가 단기간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가 장기간 횡보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전망 및 시사점

1. 전망방법

건설경기 전망은 한국은행 등 타 기관과의 비교 등을 위해 건설수주와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계약액 전망을 포함하였다. 건설수주, 투자, 전문건설업 전망의 경우 시계열

모형(ARDL)을 통해 도출한 이후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전망치를 조정하였고, 데이터 속성(월/분기/연) 및 다중공선성 문제 등으로 포함하지 못한 변수와 정책 변수,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전문건설업 전망은 모형 이외에 원/하도급, 선/후행, 건축/토목 등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하였다.

2. 건설경기 전망

먼저 건설수주 전망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7.2% 증가한 180조원으로 예상된다. 민간 토목부문을 제외한 전부분의 증가가 예상되며, 주거용 건축수주가 전체 건설수주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2020년 대비 4.0% 감소한 172.8조원으로 전망된다. 2021년 주거용 건축 수주는 기저효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비주거용 건축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OC 예산증액, 한국판 뉴딜,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에 따라 공공과 토목부문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설수주가 일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건설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업체수 등이 증가한 상황에서 수주의 감소는 중소 건설업체의 체감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 2021년 건설수주 전망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E)	2021년(E)
발주자별	공공	42.3조원 (-10.3%)	48.1조원 (13.5%)	51.2조원 (6.4%)	54.0조원 (5.5%)
	민간	112.2조원 (-1.0%)	118.0조원 (5.2%)	128.8조원 (9.2%)	118.8조원 (-7.8%)
공종별	토목	46.4조원 (10.2%)	49.5조원 (6.7%)	43.1조원 (-13.0%)	47.0조원 (9.0%)
	건축	108.1조원 (-8.7%)	116.6조원 (7.8%)	136.9조원 (17.4%)	125.8조원 (-8.1%)
합 계		154.5조원 (-3.7%)	166.0조원 (7.4%)	180.0조원 (7.2%)	172.8조원 (-4.0%)

다음으로 건설투자 전망은 다음과 같다.

건설투자는 2020년 3분기까지 191.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면서, 2018년 이후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이후 건설수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투자는 순환주기상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건설투자는 0.2% 감소하여 262.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민간부문의 부진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폭은 이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건설투자는 2020년 대비 2.0% 증가한 267.7조원 전망된다. 비주거용 건물투자를 제외하고 공공건축 및 토목투자, 민간토목, 주거용 건물투자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타 기관의 건설투자 전망치는 -0.4% ~ +3.1%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2021년 건설투자는 2020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 2021년 건설투자 전망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한국은행(9월)	-2.5%	1.9%	-3.1%	-0.7%	-0.4%
KDI(9월)	-2.5%	1.7%	0.5%	+1.1%	3.1%
국회예산정책처(9월)	-2.5%	-	-	-0.6%	-0.3%
현대경제연구원(10월)	-2.5%	1.7%	-1.3%	0.2%	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11월)	-2.5%	1.7%	-2.5%	-0.5%	0.2%
대한건설정책연구원(11월)	-2.5%	1.7%	-2.0%	-0.2%	2.0%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전망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19년 대비 1.3% 증가한 98.9조원으로 예상된다. 공공물량 증가에 따라 원도급 공사가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하도급 공사는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020년 대비 1.0% 증가한 99.8조원으로 전망된다. 2021년 전문건설업 시장 환경은 2020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공공투자 호조에 따라 원도급 공사는 2%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하도급 공사는 0.3% 증가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도급 공사

의 경우 건설투자 증가와 건설수주 감소로 계약액 증가가 업종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며, 건설생산구조 내 전문화, 분업화 역시 이미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 내부 체감경기는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소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신규진입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생산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면 전문건설업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21년 전문건설업 전망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E)	2021년(E)
도 급 별	원도급	28.4조원 (5.9%)	34.4조원 (21.1%)	35.3조원 (3.0%)	36.0조원 (2.0%)
	하도급	64.7조원 (-3.7%)	63.2조원 (-2.3%)	63.6조원 (0.6%)	63.8조원 (0.3%)
합 계		93.1조원 (-0.9%)	97.6조원 (4.8%)	98.9조원 (1.3%)	99.8조원 (1.0%)

3. 시사점

2021년 건설시장은 전체적으로 공공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 주거용건물 투자의 회복속도와 강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시장에서 민간 건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투자만으로는 건설경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현재 회복국면에 있으나, 2021년 건설수주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장기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코로나19사태 등에 따라 민간부문 경기 부진이 우려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건설시장 역시 공공투자 증가가 민간투자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 다만, 정책적 지원은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유인책 제시를 통해 부진한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회복 체감도가 낮은 중소기업,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설혁신 선도 중소기업 선정 등과 같은 지원책이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

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개별 기업은 위험관리를 경영 우선순위로 두고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별 수주, 공공공사 수주 노력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안정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교우위와 차별요소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핵심 선도사업 등에도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생활 SOC사업 등에 대한 참여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주도의 기술 및 컨설팅, R&D 지원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올 한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별기업의 혼란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불확실성이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 방향성을 잡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보도자료
2.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3.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4.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5.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6.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통계연보
7.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8.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통계연보
9. 한국은행, 2021년 경제전망보고서
1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년 건설경기 전망
12. 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한국경제 전망
13. LG경제연구원,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